

## 日本에서 느끼는 百濟人의 恨과 公지



변평섭 |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일본열도 곳곳을 다니다 보면 '일본속의 우리 문화'를 발견하고 공지를 느끼게 되지만 기쿠치성(鞠智城) 방문은 또 다른 강렬한 느낌을 갖게 했다.

구마보토(熊本)현에 있는 기쿠치성이 백제인에 의해 축성된 것임은 잘 알려진 것이지만 그 주인공이 이 곳 광장에 세워진 기념동상 속에 명확하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동상 설명문에 왜 백제인이 여기까지 와서 성을 쌓았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어 오늘의 한·중·일 동북아 정세가 1,300년 전에도 지금처럼 심각했음을 느끼게 한 때문이다.

663년 신라와 당나라, 소위 나당(羅唐)연합군에 백제가 멸망하자 일본은 그들의 보국과 같았던 백제를 되찾기 위해 훗날 天智천황이 된 中大兄왕자가 인솔하는 2만 7천명의 원군을 파견한다. 그러나 일본 구원군은 지금의 금강포구로 여겨지는 白村江해전에서 당나라 수군에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만다.

4회에 걸친 해전에서 일본은 400척의 배가 불타는 바람에 이 일대 바닷물이 연기와 불길로 빨갱게 불들 정도로 처참한 패배를 입었다. 이때 후퇴하는 일본군과 함께 많은 백제인들이 일본으로 피난을 갔는데 주로 귀족과 지식인이었다.

이들은 일본에 도착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버지않아 당나라가 신라와 함께 침공해 온 것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고 일본 야마토 조정은 사태가 긴박해짐을 실감하고 4개의 성을 쌓는 일에 총력을 기울인다.

후쿠오카현에 있는 오노성(大野成), 사기현의 기이성(基鷄成), 나가사키현의 가네다성(金田成), 그리고 바로 이곳의 65헥타르에 달하는 넓은 기쿠치성이 그것.

이 성을 총지휘한 사람이 바로 백제에서 건너온 귀족 億·福留. 광장 가운데 세워진 동상군(群)에 오직 그의 모습만 우아하고 단정하다. 그리고 다른 동상들은 모두 서 있는데 백제 귀족만은 앉은 채로 손을 들어 지휘를 하는 모습이다.

그는 왜 여기에 왔을까? 나당연합군이 일본으로 침공해 오면 이를 격파하고 나아가 잃어버린 조국 백제까지 되찾겠다는 결의 때문이었을까?

동상 밑을 받치고 있는 좌대는 6개의 동판이 장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두 개가 백제 멸망의 최후를 그린 것이다.

하나는 나당연합군이 부여를 공략하자 백마강 낙화암에서 백제왕실의 궁녀들이 장열하게 몸을 던져 강물에 빠지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일본 수군이 당나라 수군과의 백촌강 해전에서 참패를 당하는 모습이다. 기쿠치성의 축성이 얼마나 나당연합군의 위협 앞에 이루어졌는가를 실감케 한다.

이와 같은 1,300년 전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일본의 깊숙한 언덕에 숨 쉬고 있음을 바라보는 백제 후손의 가슴은 아릴 뿐이다.

그리고 그 옛날에도 지금과 같이 한반도를 에워싸고 일본, 중국 등 3국의 '힘의 균형'과 긴장이 있었음에 지정학적 우리 운명을 새삼 느낀다.

이와 같은 감정은 규슈에서 더욱 강하게 느꼈다. 일본의 맨 남쪽 끝, 그곳에 가이문다게산(開門山)이라는 해발 922m의 높은 산이 있다.

지금만 휴화산이지만 1000년 전만 해도 활화산으로 하늘 높이 불을 내뿜었다. 그러니까 백제, 신라시대 한반도와 일본의 왕래가 빈번할 때 이 산은 밤낮없이 불을 뿜어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등대가 되어 주었다.

이 화산의 불을 보고 백제 사람들은 노를 저었으며 이브스끼(指宿)에서 잠을 자고 다시 교도나, 나라, 오사카 지방으로 떠났던 것이다. 우연히도 이 화산의 불이 멈추고 그 등대역할이 끝나면서 일본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오만해진 것은 아닌가?

이곳 규슈지방은 특별한 분위기로 한국인으로서 우월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 매우 기분이 좋았다.

그 첫 번째 것은 미야자키(宮崎)에 있는 일본 최초의 천황으로 일컬어지는 진무(神武) 신궁, 그리고 그의 출생지로 전해져 오는 동굴 속의 우도신궁이다.

이곳에는 약 2,600년 전 하늘로부터 인간이 내려와 일본을 다스리게 됐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 이때 한반도에서는 이미 선사시대가 끝나고 진한, 마한 등의 삼한통치가 시작될 때라 신궁이 삼한에서 건너간 한민족일 것이라는 게 공공연한 해석이다.

이렇게 한반도에서 건너간 우리의 아득한 조상들은 역시 이곳 미야자키의 휴가(日向)에서 통치자로 즉위하고 한동안 이 일대를 다스리다 나라 등 본주로 진출했다는 것이다.

사실 휴가 인근의 사이토baru 고분군은 놀랄 만큼 다양한 모습으로 밀집돼 있어 고고학에 문외한인 사람도 이곳이 왕족의 무덤이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그 가운데는 발굴 도중에 작업을 중단하고 다시 덮어버린 고분도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고분 속에서 일본역사의 정통성을 뒤흔들어 놓을 사실들이 나타난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그 사실이란 일본 최초의 통치자가 바로 우리 한반도에서 건너왔다는 것이다.

보다 더 극적인 것은 여기서 가까운 '백제마을'을 방문했을 때이다. 마을 이름도 '백제(百濟·원래는 南鄉村)'이고 우리나라 부여의 옛 박물관 객사를 모델로 실제 크기로 복원된 구 다라노야카타(백제관)은 기와, 지붕, 기둥, 모두가 우리나라 건물로 착각할 정도다.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준 전 촌장 다바루 마사토(田原正人)씨의 명함까지 한글로 되어있어 더욱 인상적이었다.

'당신은 어쩌면 백제왕손일 것이오'라는 말에 그 역시 매우 흡족해했다.

전해 오는 이야기로는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망하자 의자왕을 비롯하여 모두 당나라에 붙잡혀 갔으나 정가왕이라고 하는 왕자 등이 일본으로 탈출, 이곳에 숨어 살았다는 것이다. 신라는 후환을 두려워하여 이곳에까지 자객을 파견, 정가왕을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할 뿐 패망한 나라의 영광이나 기록은 모두 파괴되고 문혀 버리듯이 지금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한때 일본을 지배한 것이 우리 조상이라면, 그리고 그들에게 문화를 심어준 것이 우리였다면 우리가 일본보다 모든 면에서 못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일본의 곳곳에 커다랗게 남아 있는 백제의 발자취 - 그러나 문득 지나온 발자취에만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향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야 백제 후예인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다.